전주시, 도심열섬 원인부터 잡는다

2017년까지 기존 대기측정망 4개소 포함 22개소 도심열섬 측정망 설치 계획

전주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도심 온도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균등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도심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기존 대기측정망 4개소를 포함해 총 22개소의 도심열섬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심열섬 측정망이 설치되는 지역인 상업지역 4곳과 주거지역 7곳, 주거·녹지 3곳, 녹지지역 4곳, 하천변 2곳, 공업지역 1곳, 도로변 1곳이다.

우선, 시는 올 연말까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열섬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서버를 구축하고, 열섬 영향인자인 온도와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비 8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사례가 전무한 열섬영향인자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학술기관에 열환경 조사 및 위치선정 연구를 추진했다.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밀집지역 위주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또한 시는 바람길과 녹지시설 등이 도심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녹지지역 및 하천변에도 열섬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4월까지는 도심열섬 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열섬 및 여름철 고온현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막 전주시와 국제생태문화협회(로컬퓨처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개최한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로컬퓨처스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 조지 퍼거슨 前 브리스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5개국 300여명의 생태·환경·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시별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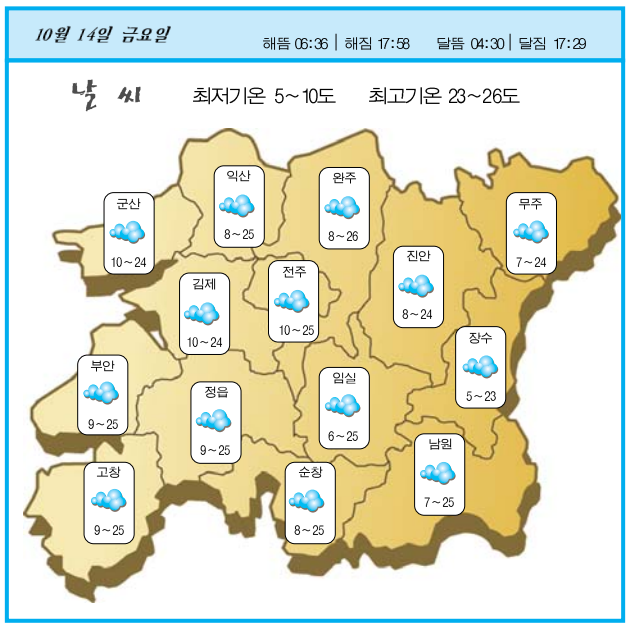
지역별 도심열섬 현상을 분석·진단한 데이터베이스는 전주시가 열섬완화 및 도시기후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열섬저감대책을 적용하는 등 도심열섬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의 신축 시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에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주시의 대표 바람의 방향만 적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열섬측정망에서 측정된 지역적 바람의 방향도 반영해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열하는 등 열섬의 사전평가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측정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지역개발 시 해당 지역의 바람길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도심열섬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민선 6기 전주시 공약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폭염과 열섬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군산대, 프라임사업 비전 선포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 건설공학 등 공간디자인 분야 육성 계획

군산대학교가 지난 12일 오후 황룡문화홀에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이하 PRIME사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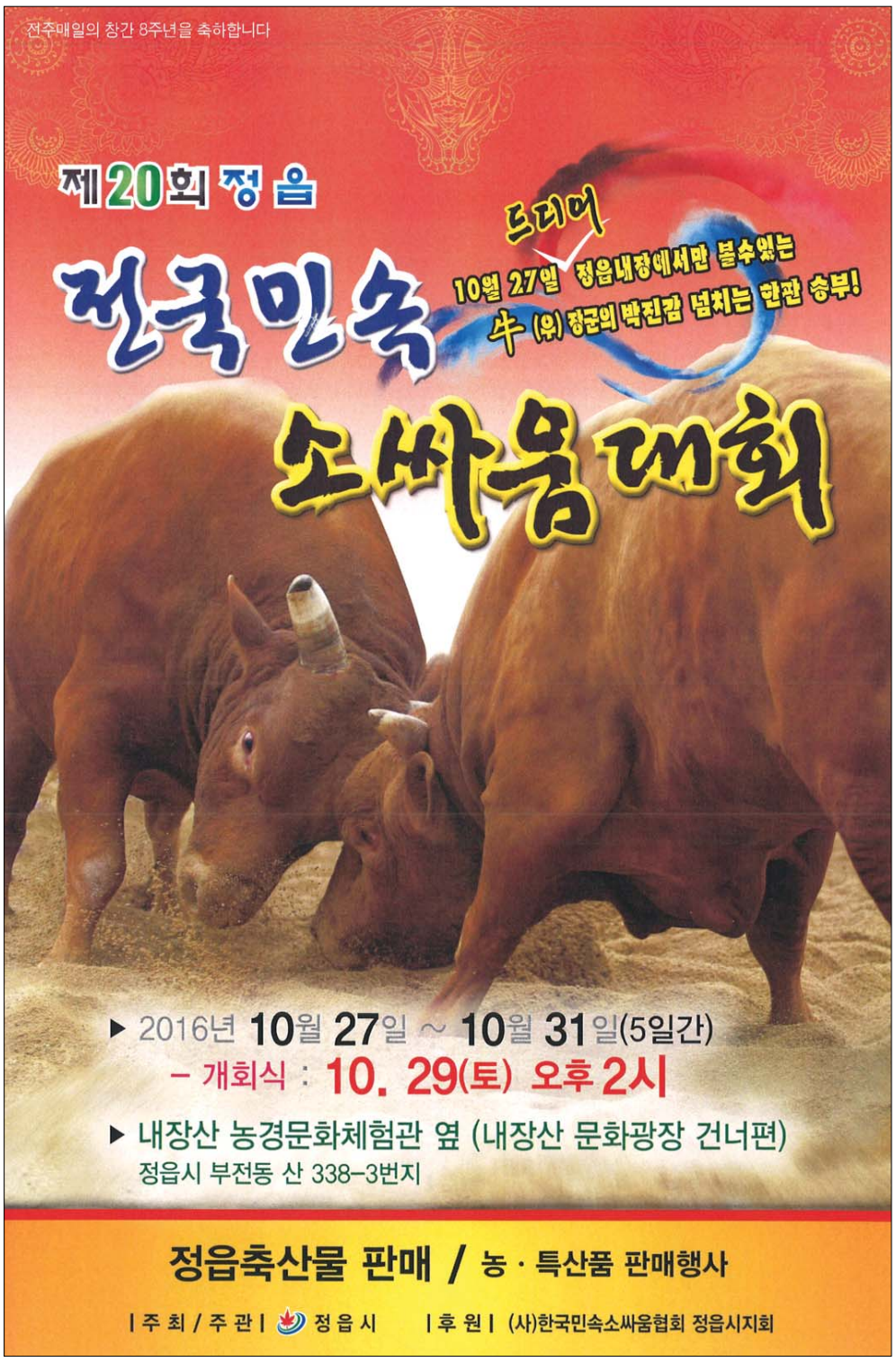
선포식에는 나의균 총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이상엽 학술진흥본부장, 군산대학교 주요보직자 및 프라임 실무위원, 참여학과 학생,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대학교 PRIME사업은 '창의적 융합형·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의 체질 개선과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호남의 제일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학융합공과대학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발, 창업·SW 인증/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공(학문)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X-Optimus) 및 산학융합 Festival 개최, PRIME학과 비교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학과인 융합기술창업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를 중심으로 참여 학과 간의 협력을 통해, 기계·자동차·신재생에너지, 건설공학, 해양운송, 공간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대, 개교 69주년 기념 '한밤의 북 콘서트'

전북대학교가 개교 69주년(10월15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13일 전북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무박 2일로 밤새 책을 읽는 '한밤의 북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밖에도 박성우 시인의 명시 특가을 비롯해 책갈피 만들기와 손글씨 쓰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원광대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기술평가전문가 위촉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옥진(사진)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기술평가전문가로 위촉됐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농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성과 폭넓은 평가 경험을 인정받은 김옥진 교수는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팀들의 기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전문가'로 선정됐으며, 콘테스트 과정은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라는 제목으로 KBS1-TV를 통해 방영된다.

한편, 지난해 1차 콘테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총 82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농업 및 수산에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52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치며, 최종 선발된 최우수 1개 팀에는 1억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 시민 · 사회단체들 마이산 케이블카 용역 중단 촉구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산·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전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하고 신뢰를 잃은 마이산 케이블카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진안군은 용역에 앞서 마이산 케이블카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명시했지만 중간 보고에서는 '생태를 보존하면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말을 바꿨다"며 "이는 케이블카가 교통수단으로써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간보고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 목적은 등산이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45%에 불과했다"며 "이어 설문조사도 시민단체를 배제했고 관광객이 아닌 군민을 응답자에 포함시켜 신뢰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들은 타당성 용역조사 중단과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진안군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수화로 듣는 한옥마을 문화해설

전주시, 11월까지 QR코드에 수화동영상 기능 추가 계획

전주한옥마을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한 수화해설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청각장애인 관광객들의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한옥마을 문화해설 QR코드에 수화동영상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QR코드는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화면에 인식시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사각형 코드로, 한옥마을 문화해설 QR코드는 현재 경기전과 전동성당, 향교, 최명희 문학관 등 한옥마을 주변 21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와 전주의 맛과 멋에 대한 음성 및 한글대본,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한옥마을 문화관광 QR코드에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동영상 기능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지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제공된 관광콘텐츠 정보와 서비스 화면을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매체에 전달·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시는 수화동영상 기능이 갖춰지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청각장애인들이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수화동영상 기능이 구축된 문화해설 QR코드가 문화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 거주분포와 장애인 복지시설 분포현황을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영재기자